대입정책 "학생 · 내실화 최우선"

전북교육청,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입장 발표… 개편 시안, 혼란 초래 · 교육과정에 맞지 않아

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및 정시 확대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내용들이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미래사회의 창의융합 인재양성이라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 23개 단체가 연합으로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대학입시 제도는 초·중·고의 정상화와 교육혁신에 기여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전북교육청은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고교 교육의 정상운영을 희망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학교교육 내실화와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과 일치하여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수능전형(정시)과 학생부종합전형(수시) 비율의 획일적인 조정보다는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고 수시와 정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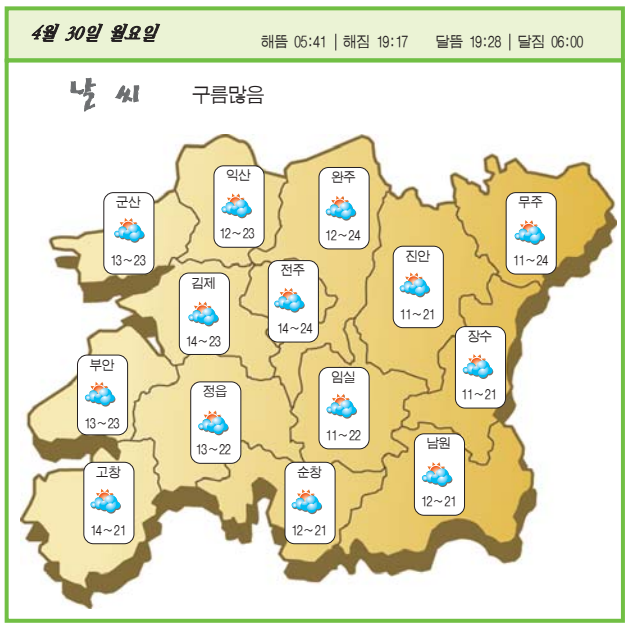
또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학생 중심, 과정 중심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학생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강점이 다르므로 다양한 도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수능 이후로 수시·정시 전형시기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능시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취평가제 및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실현해야 함을 밝히면서, 중앙에 집중된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 및 육성 방안과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및 국가교육회에서 다룰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논의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의 미래를 예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의 입장과 초·중·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결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서거석, 선거사무소 개소

오는 6월 제18대 전라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주시 완산구 HS빌딩(한두평2길6) 2층과 7층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이남호 전북대학교총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상덕 전북교총회장 등 많은 지역 인사가 현장을 찾아 축하해 줬다.

또 서 후보의 중학교 시절 은사님을 비롯해 교육계, 지지자 등 각계에서 200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서 후보의 가족 소개를 시작으로 학부모와 학생, 전직 교사 등이 후보자에게 질문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나무 즉문즉답', '릴레이 시민발언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서 예비후보는 개소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지세 확산에 나설 계획으로 있어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 열기는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불통과 오만의 8년 교육행정을 마감하고, 협력과 소통의 새로운 전북교육을 위해 출마하게 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교육이 다시 전북의 자존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상민 기자

원불교 대각개교절 경축 기념식 28일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열린 원불교 대각개교절 경축 기념식에 경산 종법사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한병도 청와대 민정수석,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식을 갖고 있다.

내년 문 여는 신설학교 이름 지어주세요

전주교육지원청, 2019학년도 개교예정 '가칭' 양현초 교명 공모… 5월 16일까지

전주교육지원청은 2019학년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양현초등학교 교명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가칭)양현초등학교는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유치원 특수 1학급 등 총 41학급 규모로 덕진구 만성동에 있다.

신설학교 교명 공모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전라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다.

교명은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름,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 타 교명과 중복되거나 혼동이 되지 않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를 원하는 도민은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 www.jbje.kr) 공지사항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인편,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공모기간을 통해 접수된 교명을 대상으로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교명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상민 기자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도입 업무협약

전북도교육청은 27일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와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서비스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부터 치료지원 전자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 전자카드 신청 및 발급, 수요자 중심의 업무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업무 등에서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치료지원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치료지원을 받은 후, 비용 납부를 전자카드로 결제해 불편함이 해소되고, 담당교사 및 치료지원 담당자의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기자

'사랑 더하고, 행복 불어나고, 함께'

전주대, 굿윌스토어와 기부 캠페인… 30일~내달 3일까지

전주대는 굿윌스토어와 함께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랑을 더하고, 행복이 불어나고, 함께 어울리는(약칭 더불어)'이라는 주제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굿윌스토어는 장애인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다. 기증된 물건은 장애인에 의해 가공되고 재판매 되며 발생된 수익은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게 된다.

전주대는 2015년 5월부터 굿윌스토어와 함께하여 교내에 유인기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교내 전체에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의류, 잡화, 생활용품 및 도서류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할 수 있으며 물품은 전주대학교 교내 대학본관, 교회, 스타센터 등 15여 개소에 위치한 블루박스 안에 넣으면 된다.

캠페인 기간 기증된 물품은 굿윌스토어 전주점에서 재판매하여 수익금은 장애인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전주대 e-복지관 관장 정수경 교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대학 교내에 기부와 사랑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굿윌스토어는 전북 전주점(완산구 팔달로 218) 외에도 서울 도봉점과 송파점, 경기 구리점 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중증발달장애인 109명 직원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이상민 기자